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글로벌문화산업학과	이름	심XX
파견국가	Czech Republic	파견도시	Olomouc
파견대학	Palacky University	파견기간	19.09.10-20.01.31
귀국여부	네(2월 2일 귀국)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Olomouc는 수도 프라하에서 2시간 10분정도 기차를 타고 가야 나오는 도시입니다. 체코에서 4번째로 큰 도시라고 알려져 있으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방학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학생들이 모두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도시가 텅 빈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다른 나라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버스나 기차로 쉽게 여행을 다니기 좋습니다! (프라하공항을 이용하기에는 좀 멀지만...)</p> <p>또한 제가 느끼기엔 치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지 학생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Envelopa 기숙사 앞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밤에 그 공원만 피해다니면 안전하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새벽에 친구들과 파티가 끝난후 기숙사에 돌아간적이 많은데 이상하거나 위협적인 사람들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밤길은 혼자 다니시면 안됩니다...!!)</p> <p>Palacky 대학은 캠퍼스가 우리나라처럼 모여있지 않고, 도시 여기저기에 건물들이 분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대학건물같이 생기지 않은 건물들도 많고 뜬금없는 곳에 위치해있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건물 위치를 잘 파악하고 수업 들으시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수업 들으러 가실 때는 여유롭게 출발하시는걸 추천해요! 저는 주로 시내 중심가에 있는 Art 수업 건물에서 수업을 들었지만 어떤 수업은 트램을 타고 가야할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기도 했습니다. 시간표 짜실 때 건물 위치도 꼭 확인하세요. 시내에는 다양한 음식점들과 학교 기념품샵 등이 있으며 Santovka라는 종합 쇼핑몰을 가시면 albert라는 대형 마트와 맥도날드, KFC같은 체인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환학생들이 이용하시는 Voda폰의 요금도 여기서 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약간 행한 편이고 시골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웬만한 일상에 필요한 시설들은</p>

	<p>모두 있습니다. 제가 산 기숙사는 olomouc 중앙역과 Regiojet버스 정류장, 우체국과도 가까웠습니다.</p> <p>참고로 Olomouc의 버스와 트램의 경로는 구글맵에 뜨지 않습니다. 'IDOS'라는 앱을 설치하셔서 직접 가고 싶은 곳을 검색하시면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p>
2018-2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X(한학기 파견)</p>
2019-1학기 수업	<p>-Central European Culture and Society (비추천)</p> <p>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체코와 유럽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다면 들으셔도 괜찮으실거예요! 이름은 문화와 사회이지만 역사 수업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중앙 유럽의 개념 등에 대해서 배우고 거의 매주 영화를 보여줍니다. 영화를 보고 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 수업할 때 이 토론에 얼마나 참여했는지가 성적에 들어갈거라고 했는데, 별로 그런거 같진 않았습니디. 중간에 한 번 제출하는 리포트, 그리고 무엇보다 한 학기에 한 번 보는 기말고사 성적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았습니다. 매주 주는 20페이지 정도 분량의 영어 보고서를 모두 읽어야하고 책과 논문의 저자 등을 모두 외워야합니다. 하지만 수업 내용을 이 보고서로 하지는 않습니다... 수업 내용은 따로 공부합니다. 수업시간에 알려준 영화 감독들의 이름과 어느 나라 출신인지 매치하는 문제 등이 기말고사 문제로 나왔습니다. 같이 들은 유럽 친구들도 자신들도 E를 받아 겨우 통과했다며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리포트는 표절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리포트의 퀄리티가 나쁘다면 시험 성적과 관련없이 F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p> <p>-Czech Culture and History (추천)</p> <p>교수님이 굉장히 유쾌하신 분입니다! 매수업시간마다 체코 간식거리와 맥주 혹은 와인을 주십니다!! 결석은 2번까지 인정해주십니다. (하지만 출석을 부르시지 않음ㅎ) Olomouc의 많은 맛집과 술집을 추천해주시는데</p>

특히 양조장과 베트남 음식점이 정말 괜찮습니다. 한 번쯤 가보세요!
수업은 사실상 교수님보다는 교수님의 조수?같은 역할을 하시는 학생분들이 체코의 도시들을 설명해주는 것이 수업의 주를 이룹니다. 시험은 치루지 않으며 15페이지 분량의 일기를 써서 내는 것이 과제입니다. 14포인트까지 글씨를 키워도 되며, 3권의 책, 2권의 영화 리뷰를 포함한 일기여야 합니다. 박물관 리뷰로 이 중 하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무하 박물관이나 프라하 성 등 유명 관광지로 써도 괜찮았습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유하신 분이시지만, 모든 리포트를 읽어보시며, 맞춤법과 분량, 내용의 충실성 등을 고쳐서 다시 제출하라며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성의 없게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아래 두 수업은 교환학생만 들을 수 있는 교환학생들을 위한 영어 수업입니다. 본인의 영어 실력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 수업들을 듣는 학생들 중 대다수 일본인 학생들입니다.

-Academic English for Exchange Student

영국 발음을 쓰시는 유쾌한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토플 Writing과 굉장히 비슷한 Writing 기술과 Presentation할 때의 태도 등에 대해서 배웁니다. 2번의 결석이 인정됩니다. moodle이라는 수업 정보 시스템에 자료들을 올려주시지만 가끔 수업시간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모두 나오므로 잘 필기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길 추천합니다. 토론이 굉장히 많은 수업이고 3번의 간단한 레포트(나중에 첨삭해주심)와 한 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재시험 기회까지 포함해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편. 수업시간에 딴 짓하거나 핸드폰 만지는 걸 매우 싫어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영어를 잘 하신다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English Communication for Exchange Student

영어 발음에 대한 수업으로 발음이 굉장히 좋으신 여자 교수님께서 수업하십니다. 에너지 넘치시고 열정적으로 수업하십니다. 꽤 디테일하게 발음 구조와 발음법을 알려주시는게 특징이며 매 수업시간마다 포스트잇을 나눠주세요! 거기에 어려운 발음 등을 적고 자주 보는 곳에 붙여놓고 발음 연습하는 것을 권하십니다. 종종 학생들 한명 한명에게 발음을 시켜보시는데, 소리가 작거나 발음이 틀리면 제대로 할 때까지 시키시는데 절대로 그 전에는 다음 차례로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과제는 없으며 시험은 한 차례 치뤄집니다. 시험은 교수님이 랜덤으로 선정한 단어들을 발음하는 것인데, 아무 준비도 안해가면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Moodle에 올려주시는 자료와 수업시간에 개인이 필기한 것 한번씩 읽어보시고 시험 보시길 추천합니다.

-Czech folk Dance

이 학교는 1교시가 8시입니다!! 이 포크 댄스 수업도 1교시였는데 기숙사에서 멀어서(Envelopa) 7시부터 나와서 트램타고 갔었습니다. 따로 워밍업없이 바로 본격적으로 춤 수업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Neredin 기숙사 바로 옆이라서 그 기숙사 사시면 들을만한 수업입니다. 매주 체코 전통 음악에 맞춰서 춤을 배웁니다. 남녀 짝을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이 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체취가 너무 강한 남학생들과 짝이 되면 조금 힘들기도 했습니다.....(허리와 어깨 등의 스킨십이 많은 편이며 남학생이 여학생을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도 하나 있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학생들만 하는 선택사항이었지만 모든 학생들이 함)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페인에서 온 체육부 학생들이었으며 학생들이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어서 항상 에너지 넘치는 즐거운 수업이었습니다. 춤 잘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아무리 교수님이 가르쳐봐도 다음주만 되면 모두가 다 까먹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ㅎㅎ 그래도 교수님은 너희처럼 잘하는 학생들은 없고 best students ever이라며 엄청 예뻐해주시곤 했어요! 시험은 없으며 중간에 각자 나라의 춤과 관련된 2장짜리 리포트를 제출해야합니다! 늦게 내도 협상은 안해주신다고 했습니다.

-World Theatre Seminar B

개인적으로 공연에 관심이 많아서 들은 수업입니다. 학생이 3명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분의 교수님께서 항상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한 달에 2번의 수업이 진행되며 11월부터는 수업이 없었습니다. 수업 내용은 체코에 있는 공연 시설과 주된 공연의 내용 등을 알려주셨으며 공연장과 작품을 추천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각자의 나라의 공연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며, 종종 학교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안부를 물어봐주시는 다정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수업도 적고 시험은 없지만 대신 학기말에 제출해야하는 리포트의 주제에 대해 개인 면담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3명 모두 깜빡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리포트를 제출했더니 우리 모두에게 A를 주셨습니다.

<p>프로그램 운영</p>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p> <p>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1) 버디</p> <p>체코에 도착하기 전에 학교에서 미리 '버디'라는 교환학생 생활에 도움을 주는 학생을 배정해줍니다. 저는 순천향대에 교환학생으로 왔던 학생을 배정받았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버디들도 있는 반면에 저는 딱 1번만 만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국인은 악몽을 꿴다는 이유로 버디가 드림 캡처를 사다줬다고 하고, 기숙사 입소하는 날에 동네 구경을 시켜줬다고 하기도 해서 친하게 지내는 버디들을 보면 조금 부러웠습니다</p> <p>2) 오리엔테이션</p> <p>오리엔테이션은 일주일동안 진행되며 낮에는 강의실에서 학교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밤에는 ESN이라는 학생연합에서 주최하는 이벤트를 열어줍니다. (주로 펍과 클럽에서 진행) 첫 날 오티는 수강신청, 학교 시스템 접속 등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꼭 가야합니다. 다른 날에는 간단한 체코어 회화 등의 강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진행되는 이벤트를 몇 번 가봤는데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제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 대화에 끼어들지 못한 탓일 수도 있지만 국적별로 끼리끼리 노는 경향이 조금 심했습니다. 이미 상당히 친해진 무리끼리 다녔고 아시아인은 저뿐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주목받는 일도 있어서 즐거운 경험은 아니었습니다.</p> <p>3) 학기 중 Esn 이벤트</p> <p>오티 첫 날 ESN에 가입하라며 키트를 팔텐데 구입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유럽 저가항공사인 라이언에어 15%할인 8번과 영화 티켓 1+1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ESN이라는 단체는 오티 때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하이킹, 피크닉, 나무 심기, 동물원 청소 등 많은 이벤트와 봉사활동 등을 주관합니다. 여기서 많은 공감대가 있는 친구들을 사귄 수 있으며 좋은 경험으로 남기 때문에 한 번쯤 참여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언어 교환, 펍 퀴즈 등과 같은 이벤트들도 한 번쯤 참여해봐도 나쁘지 않습니다.</p> <p>4) National Presentaion</p>
--------------------	---

	<p>일주일에 한 번씩 두 개에서 세 개의 나라들끼리 대결(?)을 하는 National Presentaion이 진행됩니다. 각자 나라에 대해 소개하고 음식을 만들어가 학생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중국과 일본과 경쟁 상대가 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있던 해에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분들은 Business Korean학과 학생들이 보유중인 한복을 빌려서 입고 발표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우리나라 발표가 있는 날 다른 나라를 여행 중이었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무도 발표를 원하지 않아 기권했습니다. 비록 직접 참여해보지는 못했지만 종종 다른 나라 발표를 구경하러 갔는데 나름 재밌었습니다. 발표의 내용은 지루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음식들을 맛보는 것도 재밌고 나라끼리 은근 기싸움이 있는데 그걸 구경하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프랑스랑 스페인이 재밌었어요. 최후의 1위는 학기가 끝나갈 때쯤 발표되는데 사실 1위의 메리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p> <p>5) Student Party</p> <p>매주 수요일 ESN이 주최하는 나라 이름이 테마로 붙은 파티가 열립니다. Ex) French Party, Spanish Party (아시아권 나라 파티는 본 적없음, 주최자가 있어야 파티가 열리는데 아시아권 학생들이 주최하는 경우가 없는 듯) 또는 시기에 따라 웰컴 파티, 할로윈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등이 열리기도 합니다. 학교 학생들이 주로 가는 클럽은 'Belmodo'와 '15 minutes' 클럽입니다. 이곳에서는 취객과 진상들이 많아서 Students Party가 열리지 않으면 학생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매주 일주일에 보통 월, 수 이렇게 2번 정도 파티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실컷 갈 수 있습니다. (재미는 보장할 수 없음...)</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	-----------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원래 Olomouc는 굉장히 비가 자주 오고 연기가 많이 끼며 추운 우울한 날씨의 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은 날씨가 굉장히 화창했으며 따뜻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종종 너희는 이 기간에 와서 굉장히 운이 좋으며 보통 올로모츠의 날씨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기숙사 마당에서 학생들이 항상 배구나 탁구, 체스를 두고 놀곤 하더군요</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앞서 말했듯이 치안은 좋다고 느꼈습니다. 한밤중에 혼자 다니거나 공원에만 가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모두 떠나는 방학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유난히 말을 거는 노숙자들이 많긴 했습니다. (보통 거절의 표시를 하거나 I can't understand Czech language라고 말하면 순순히 갔음)</p>
숙소	<p><i>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교환학생이 살 수 있는 기숙사는 Envelopa와 Neredin 두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Neredin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Envelopa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이었습니다. Neredin은 수업을 들을때나 시내를 나올 때 트램을 타고 15-20분 정도 나와야합니다. 하지만 시설은 Envelopa보다 월등합니다. 두 기숙사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면 될 듯 합니다.</p> <p>1) 수용 인원수</p> <p>Envelopa-제가 산 기숙사는 향1처럼 두 방이 한 욕실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냉장고와 신발장, 욕실과 화장실을 공유합니다. 한 방 당 3명, 즉 6명에서 사용합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방에 거미줄이랑 먼지가 심했습니다. 저는 '그냥 닦고 쓰면 되지 뭐'라는 생각으로 썼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싫으실 수도 있어요! 옷장에서 남자 속옷이 나온걸 보면 새입주자가 오기전에 청소를 해준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p>

	<p>Neredin- 1인실 혹은 2인실입니다. 1인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강력히 어필하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2개의 1인실과 2개의 2인실, 총 6명이 1개의 플랫과 2개의 욕실을 공유합니다. 플랫에는 주방이 있습니다.</p> <p>2) 주방</p> <p>Envelopa-이 기숙사에는 한 층 당 1개의 주방이 있는데 진짜 엄청 좁고 전기 스토브도 4개 자리밖에 없고 전자레인지 하나 있는데 2층에서 자꾸 훔쳐가서 못쓰게 됩니다... 한 층에 20개가 넘는 방이 있는데 주방은 하나입니다. 주방에 자기 물건 잠깐 뒀다가 누가 훔쳐갔다고 싸우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가끔 학생들이 스피커를 들고 와서 주방을 클럽으로 만들기도 하고 가끔 커플들이 애정행각을 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요리를 해먹는 성격이 아니라 거의 사다 먹거나 라면만 먹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설은 불편하지만 주방에서 자주 만나는 터키 학생들과 친해져서 음식 나눠먹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확실히 주방 기구를 이용하기는 불편해서 이런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Neredin을 고르세요</p> <p>Neredin- 6명에서 한 주방을 공유하며 전기 스토브 2개, 전자레인지, 개수대, 오븐, 커피포트와 많은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가끔 네제딘에 놀러가서 요리를 해먹었는데 다양한 요리하기에 압도적으로 엔벨로파보다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p> <p>3) 각종 사고들</p> <p>두 개의 기숙사 모두 기숙사 내 파티가 잦은 편이고 이런 저런 사고들이 많지만 Envelopa가 빈도는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새벽에 스피커를 틀고 파티하는 날도 굉장히 많고 기숙사 사감이 경고를 주면 엘리베이터에 숨어서라도 파티를 하곤 합니다. 특히 이탈리아나 프랑스 학생들이 사는 방 근처로 방을 배정받는다면 굉장히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O) 직접 요리 () 기타 (0)</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기숙사마다 교내 식당이 있지만 한 번도 이용해본적이 없습니다. 듣기로는 음식마다 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가 적힌 식권표를 사서 식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맛있다고 하는 친구들을 본적이 없어서... 다들 그냥 싸서 배 채우려고 먹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가격은 2-4천원 정도)</p>

저는 마트나 카페에서 사온 빵이나 한인마트에서 사온 라면 등으로 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요거트와 치즈류, 햄과 소시지가 굉장히 싸고 맛있어서 자주 사다 먹었습니다. 외식 물가도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 있을 때는 외식을 주로 했습니다.

-감자튀김 테이크 아웃집

FÆNCY FRIES Olomouc

Ztracená 10, 775 00 Olomouc, 체코

<https://goo.gl/maps/SFGA7MW2yzXbnD2s7>

-햄버거집이지만 항상 닭요리와 감자전을 먹었던 스테이크 맛집

Restaurace Pod Limpou

Dolní nám. 22/43, 779 00 Olomouc, 체코

+420 583 035 322

<https://goo.gl/maps/Fs1EudBvUXgj4cqL8>

-브런치 메뉴와 차이라떼 맛집, 프랑스식 디저트도 맛있다.

Café La Fée

Ostružnická 13, 779 00 Olomouc, 체코

+420 737 147 006

<https://goo.gl/maps/DQbAxYpNWn6rEnM48>

-별로 안시끄럽고 기네스가 맛있어서 자주 갔던 아이리쉬 펍

Temple Irish Pub

Ostružnická 27, 779 00 Olomouc, 체코

+420 721 808 404

<https://goo.gl/maps/BGszcUQd2F3iKQPu5>

-양조장.

Svatováclavský pivovar

Mariánská 845, 779 00 Olomouc, 체코

+420 585 207 517

<https://goo.gl/maps/eNQwzWG85cpU5nax6>

나름 괜찮은 식당과 펍이 많습니다. 맥주를 좋아하면 양조장은 꼭 가보세요

<p>교통</p>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저는 앞서 말했듯이 기숙사가 시내에서 가까워서 대부분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걸어서 15분정도 거리내에 있었습니다. (Art 관련 수업 건물들) 아침 8시 수업이 굉장히 먼 곳에서 진행되어서 Santovka앞에서 7번 트램을 타고 20분정도 가 Neredin까지 갔었습니다. 대부분의 체육과 관련된 건물은 그쪽에 있으니 참고하세요.</p> <p>유럽에서 거주하면서 제가 유용하게 썼던 교통앱들입니다.</p> <p>Omio- 유럽내에서 모든 기차, 버스, 비행기 정보가 뜹니다. 한 국가내의 도시-도시뿐만 아니라 나라-나라 등 모든 경로를 알려주지만 결제가 텅길 때가 많아 노선을 확인할 때만 이용했습니다.</p> <p>Muj vlak- 체코 기차</p> <p>Rejiojet, Flixbus- 다른 지역(프라하, 브르노, 오스트라바)이나 가까운 나라 이동시 이용</p> <p>IDOS- 간혹 체코의 시골 지역들(올로모츠포함)은 구글맵에 트램과 버스 정보가 뜨지 않기 때문에 이 앱을 통해 확인해야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20만원	직항 왕복
Fees	<p><i>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i></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p>X</p> <p>*학교에 교육비는 내지 않았는데 체코에 90일이상 거주하면 Wast management fee라는 것을 반드시 내야합니다. 1년 비용이 4만원 정도</p>	X

	되며, 저는 280코루나, 즉 만 7천원정도를 지불했습니다. 출국전 반드시 해당 창구에 가서 세금을 지불해야 하며 학교에서 안내를 줄 것입니다.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체코 교환학생 보험'을 검색하면 제일 많이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보험회사로 했으며 18만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숙소	Envelopa-보증금 13만원 매달 기숙사비 13만원 Neredin-보증금 15만원 매달 기숙사비 15만원	마지막달 기숙사비를 보증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돌려주기 때문에 최종 체크아웃 후 체코를 여행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
식비	매달 20만원	체코는 물가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마트에서 간단히 사다 먹거나 만들어 먹으면 식비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교통비		Rejiojet이라는 기차로 프라하 왕복권이 약 5-6천원 정도합니다. Ostrva같은 옆동네는 왕복 2천원 정도. 또한 폴란드처럼 가까운 나라는 Flixbus로 왕복 3만원 정도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책값	0	교수님들이 모두 자료를 Moodle에 올려주시거나 프린트해주셔서 교재값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기타1	여행비 약 500	-유럽내 12개 국가 여행 비용 ESN에 가입하신다면 라이언에어라는 저가항공사에서 15% 할인을 받아 매우 저렴하게 타국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항공사라서 공항에서 시내가 멀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시내까지 이동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타2	보다폰 보증금 10만원 매달 약 2만 5천원	학생 요금을 선택하시면 보증금 10만원에 매달 요금 2만 5천원으로 12GB, 통화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데이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계	여행비용을 제외하면 항공료와 5개월동안의 생활비는 400만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저는 교환학생 합격하고 학교에서 입학허가증이 나오고 바로 비자 인터뷰를 신청했고 비자에 필요한 서류들을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체코 대사관은 비자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인터뷰 날짜를 정할 수 없고, 대사관에서 임의로 날짜를 정해줍니다. 그 날짜가 불가능하다면 다시 처음부터 인터뷰를 신청해야합니다. 비자 취득에 걸리는 시간도 오래걸리기 때문에 서류도 톡톡히 준비하고 인터뷰 날짜도 잡아서 그 날은 확실히 비워두는 등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나중에 여유롭게 출국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Palacky학교에서 다음학기 수업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강신청할 때 상당수가 개설되지 않아서 제가 계획했던 대로 수업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수강신청주가 아니면 수업시간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티가 시작하는 주부터 구체적인 시간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학교에서 제공한 수업 리스트를 꼼꼼히 체크하며 시간표를 짰는데, 무의미한 행동이었죠. 가볍게 어떤 종류의 수업이 영어로 제공되는지 뉘앙스만 파악하시는데 이용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저는 경영대학 수업이 듣고 싶었는데, 제가 다닌 학기에 Palacky에서 진행되는 경영대 수업은 체코어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들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영어 회화와 비즈니스 영어로 대처할 만한 수업들을 선택해서 들었습니다.

-비자 만료일이 1월 31일이었는데 출국일이 2월 1일이라 걱정했습니다. 학교측에 물어보니 자세히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아마도 우리나라 여권은 무비자로 유럽을 90일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이라라는 답변을 받았고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타

-프라하 한인마트만 가도 꽤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챙겨오는 것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은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좀 비싸죠. 아는 한국인 언니가 1회분씩 뜯어서 쓸 수 있는 조미료를 가져왔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유용하게 썼었습니다.

-저는 1인용 전기장판을 꽤 큰걸 가져갔었는데 생각보다 유용하게 썼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병원을 가도 '따뜻한 티 한 잔하고 폭 자!'같은 진료밖에 받을 수 없고, 약국에서도 종합감기약같은건 안 팔기 때문에 감기약은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실내가 매우 건조해서 그런지 감기 걸리기 매우 쉬운 것 같아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Palacky 대학은 학생들에게 정말 많이 신경을 써줍니다. 중요한 전달 사항은 여러 번 학생들에게 친절히 전달해주며 학업과 관련된 일 처리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한국과 비슷)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님들 또한 다정하시고,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Erasmus 학생들을 배려해주시는 점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점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수업과 생활을 대부분 다른 유럽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하고 이 학생들은 소통할 때 보통 영어로 합니다. 체코는 체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보다 자주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그다지 극적으로 다가와주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격 좋은 친구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도 하지만 보통 타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가오는 사람을 밀어내는 것은 아니라 먼저 말을 걸면 대부분 살갑게 대답해주니 걱정하지 말고 먼저 말을 건네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유난히 한국인들끼리 몰려다니는 학생분들도 계셨는데 학기가 끝나갈수록 다른 학생들과는 교류하지 않고 기숙사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다양한 국적의 Erasmus 학생들과 Business Korean 학과 학생들과 즐거웠던 경험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많은 모임과 이벤트에 참여해보고, 본인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코 사람들은 겉으로는 무뚝뚝해보이지만 막상 굉장히 친절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체코 내에서 인종차별을 받은 적은 없고 도움받은 기억은 많네요. 우체국이나 슈퍼만

가도, 어색하신 영어로 말을 건네시려고 노력하시는게 느껴졌고 이 나라에 와서 살면서 이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제가 다닌 학기엔 조금 체코어 수업이 개설되지 않았었는데 혹시 개설된다면 꼭 들으시길 추천할게요! 간단한 숫자와 인사말을 구사하는 정도로도 사람들이 인상깊어 합니다.

체코에서의 여행은 여유롭고 너무 아름다웠고 좋은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국가로 여행갔다 체코로 돌아오면 마치 한국에 있는 집에 돌아온 것처럼 안심이 되고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머무는 동안 크게 불편함 없도록 배려해주고 도와준 사람들 덕분에 것 같습니다. 한 학기만 신청한 것이 후회될 정도입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학교를 가시게 된다면 제가 느낀 체코의 매력들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 '소냐'가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남겨주고 싶다며 자기 아파트에 우리를 초대해 크리스마스 진저브레드를 함께 만들었다.



한국 음식과 K-POP을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 여학생들이 Food exchange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은 날



룸메이트 언니들과 한국인 학생들과 헤어지기 전 마지막 술자리



체코 친구들에게 한식으로 뷔페 차려준 날. 나는 저 사진 찍을 때 체코 전통술인 베체로브카를 먹고 뺏어서 내 사진은 합성이다....



Folk댄스 수업 마지막 날 학생들과 찍은 사진. 진짜 까불이들이었다.



Wednesday pub crawl이라며 가끔 수요일마다 만나 술을 마시며 같이 논 친구들. 이 친구들 만나는 날은 해 뜨기 전에는 집에 갈 수 없었다...